

**담당 : 홍보팀 강명윤 대리ㅣ Office : 02)560-4442 ㅣ Mobile : 010-2996-7842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5월 03일(토) 16:50 ㅣ 보도 일시 : 2025년 5월 03일(토) 16:50**

**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3라운드 주요선수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4일(일) |
| 3 | 장 소 |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[산길(OUT) / 숲길(IN)] |
| 4 | 주 최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, 크리스에프앤씨 |
| 5 | 주 관 | KLPGA |
| 6 | 총 상 금 | 13억 원 (우승상금 2억 3천 4백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05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2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김민선7, 방신실, 김민주, 이예원, 박보겸, 고지우, 유현조, 박현경,  박지영, 마다솜, 배소현, 정지효, 송은아, 전예성, 이다연, 장하나, 장수연,  정희원, 최혜정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SBS(지상파)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08시 ~ 18시  [2라운드] 08시 ~ 18시 (SBS지상파 16:00 ~ 17:00)  [3라운드] 09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09시 ~ 16시 |

**◈ 홍정민 3라운드 중간합계 7언더파(69-68-65) 202타 단독 1위**

**-홍정민 상세 프로필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50>

**- 홍정민 첫 우승 이후 2년 11개월 만에 2승 도전**

**- 홍정민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이자 첫 스트로크 플레이 대회 우승 도전**

**-홍정민 코멘트**

**Q. 3라운드 소감?**

경기 초반 비를 맞아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. 근데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잘된 부분들이 많았다. 퍼트도 잘 떨어지고 아이언 샷도 공략한 것보다 더 핀 쪽으로 갔다. 이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.

**Q. 14번 홀 보기가 아쉬울 것 같은데?**

보기를 기록하고 홀아웃 하면서 다시 보니 산에 둘러쌓여 있어서 어두운 느낌이었다. 어두울 때 라이가 잘 안보여서 라이를 읽는데 실수가 있었다.

**Q. 2위와 격차가 큰데?**

타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2위를 견제하면서 플레이하기 보다는 내 플레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.

**Q. 우승에 대한 생각?**

첫 우승 이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. 국내 개막전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는데, 과거를 따지기 보단 내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.

**◈ 박현경 3라운드 중간합계 9언더파(68-69-70) 207타 단독 2위**

**-박현경 상세 프로필**

**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30**

**-박현경 KLPGA 챔피언십 3승 도전**

\* KLPGA 챔피언십 다승 기록

텍스트, 라인, 폰트, 번호이(가) 표시된 사진

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
**-박현경 코멘트**

**Q. 총평?**

오늘 쉽지 않은 하루였다. 그래도 항상 마지막이 좋으면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. 18번 홀 버디가 내일의 희망이 될 것 같다.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것만으로 잘 했다고 생각한다.

**Q. 홍정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?**

홍정민 선수에게 계속 ‘대박이다’라고 얘기했다. 워낙 샷이나 퍼트감 모두 하나 빠짐없이 잘 하고 있ᅌᅥ서 따라잡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.

**Q. 최종라운드 관건?**

오늘 핀 공략을 하는 세컨드샷이 만족스럽지 않았다. 세컨드 샷 공략에 집중하려고 한다. 세컨드 샷이 좀 더 좋아진다면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.